

## [QT 세미나]

### 묵상속에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2)

이상규 목사 / 2000/ 페이지수: 2

“상상력을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한번도 없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해보라.  
...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이며,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바쳐야 한다.“

묵상(meditation) 또는 관상(contemplation)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상력’이다. 오스왈드 챔버스(Oswald Chamber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한번도 없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해보라...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이며,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바쳐야 한다.”

#### 거룩한 상상력

사실 추상적인 묵상만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경건의 거장들은 상상력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권한다. 알렉산더 화이트(Alexander Whyte)의 말을 들어보라.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상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시야에서 결코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 ... 당신은 거룩한 기쁨을 부음받은 당신의 상상력을 가지고 ... 어떤 때는 세리가 되고, 어떤 때는 탕자가 되며 ... 어떤 때는 뜰에 있는 베드로가 된다... 그리하여 신약성경 전체가 모두 당신의 자서전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후 1세기 팔레스틴에 일어났던 가장 심오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관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단순히 귀납법적 성경공부나 피상적 묵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복음서의 사건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냄새를 맡으며 해변의 파도 소리를 들어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둘러보고 저들의 머리에 비치는 태양과 뱃속의 굶주림을 느껴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 표정과 눈빛을 응시하고 그의 입이 무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아야 한다. 물론 우리의 ‘상상력’은 일그러진 욕망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우리시대의 영상매체들이 보여주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과 왜곡된 성, 폭력, 공포의 내용들을 볼 때 상상력의 가공스러운 위력과 위험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따랐던 제자들의 삶 속에 상상력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동참하려 할 때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의 외침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마 3:2,3)

### **왜곡된 상상력 정화**

여기서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를 온 역사가 대망한 메시야로 알아보고 따르는 획기적인 삶을 경험하려면 로마에 짓밟힌 유대주의가 제공한 모든 왜곡된 관념, 생각과 거기에서 피어오른 상처받고 분노하며 일그러진 욕구들을 세례를 통해 깨끗이 씻어내고 주를 맞이하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의 입장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시대가 제공한 모든 왜곡된 상상력을 정화시키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성화된 상상력으로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들어서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1. 리차드 포스터 「영적훈련과 성장」(생명의 말씀사) p. 29-55
2. 캔 가이어 「묵상하는 삶」(두란노) p. 129-146

\* 출처 : Q T 신 문 (2000. 4. 30)